

2023. 10. 12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0월 12일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

도심재창조과장	정희원	02-2133-4630
녹지도심관리팀장	신대철	02-2133-4653
녹지도심사업팀장	진명국	02-2133-4643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4매

## 세운지구 소생공인 품은 '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' , 본격 운영 개시

- 서울시·한국토지주택공사(LH) 함께 공공임대상가 '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' 조성
-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 상가 세입자 우선 입주...올 7월 상가 58호 모두 입주
- 입주사 회의실·보안 시스템 갖춘 사업장 제공...안전하고 쾌적한 조업 지원
- 향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산업시설 추가 조성 예정

세운지구 세입자 이주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함께 조성한 공공임대산업시설 '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' 가 운영을 시작했다.

- 을지로 일대에 위치한 세운지구에는 전기, 전자, 금속, 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있다. 하지만 청계천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며 오래된 건물들은 철거됐다.
-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도심 산업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'2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협약을 맺고 LH 비축토지를 활용한 '공공임대산업시설 및 창업지원시설' 조성을 추진해 올해 공사를 마쳤다.
- 사업은 서울시(15%)와 LH(85%)가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, 서울시에서는 설계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, LH에서는 설계·건설 등 신축을 총괄했다.

- ‘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’는 지하 1층, 지상 6층, 연면적 4,235 $m^2$ 의 규모로,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. 1층~5층은 공공임대 상가로, 6층은 청년 창업 지원시설로 운영된다.
  - 1층~5층은 총 58호의 공공임대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유·운영한다.
  - 6층 전체는 창업지원시설로 조성하였으며, 서울시(일자리정책과)에서 소유하며 ‘청년취업사관학교’로 활용한다.
  
- 시는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, 올해 7월 상가 58호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다.
  -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협의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세입자에게 상가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. 향후 공실이 생기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상가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  
- 상생지식산업센터에는 작업자들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냉방 시스템, 샤워실 등이 제공된다. 입주업체 간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각 층에 회의 공간도 제공한다.
  - 관리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재 및 보안 시스템도 도입해 이주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장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
- 시는 종묘~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사업 시행자가 실질적인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.
  -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은 기존 세입자의 대체 영업장을 확보하거나 우선 분양권, 임차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다.

- 아울러 제조, 인쇄 등 기존 산업 가운데 도심에서 필수 수요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.
  - 대표적으로 세운 5-1·3구역의 경우 지난 9월 5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가결돼 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. 공공임대 산업시설은 지상 16층, 연면적 6,444㎡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, 기존 제조업 등 세입자는 기부채납으로 지어질 공공임대상가에 입주하게 된다.
  - 타 정비구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필수 수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공공임대 산업시설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.
  
-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“산림동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통해 정비사업 대상지 이주 상가세입자가 해당 지역에 재정착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”면서 “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더 세심한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첨부 : 현장사진 1부. 끝.

□ 현장사진

